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 근본 대책 세워라”

8개 환경단체, 다음달까지 갑상선암 피해 2차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 2차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 환경단체는 지난 16일 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피해를 주장하는 301명(영광 34명·고리 191명·월성 46명·울진 30명)과 가족 등 1336명을 원고로 하는 1차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차 공동소송 원고 자격도 1차와 마찬가지로, 원전으로부터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 원자력발전소 직원 등이다. 원고 모집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원고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수술 확인서 및 입원기간 확인서, 진료비 지급 영수증 등이다.

영광 지역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접수받는다. 전화 문의 061-353-4994.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한수원의 책임을 묻는 2차 공동소송을 추진하는 이유는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1차 공동 소송 원고 모집에 참여한 주민 외에 더 많은 갑상선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한수원이 갑상선암

발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 10월 고리원전 인

근에 살고 있는 이진섭씨(48)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8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부실자재(인코넬 600) 사용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빛 3·4호기를 가동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치한 십자가 앞에서 “다음은 영광 차례”라는 경고 문구를 담은 십자가를 들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큰빛이끼벌레 급속 번식은 4대강 공사 탓”

환경부 “강우량 적고 보 설치로 유속 감소”

올 여름 영산강 등 4대강에서 큰빛이끼벌레<사진>가 창궐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였던 4대강 공사로 설치된 보(坝)가 원인이라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다만, 생태계 악영향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큰빛이끼벌레가 유해성과 생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 여름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에서 출현한 큰빛이끼벌레가 수중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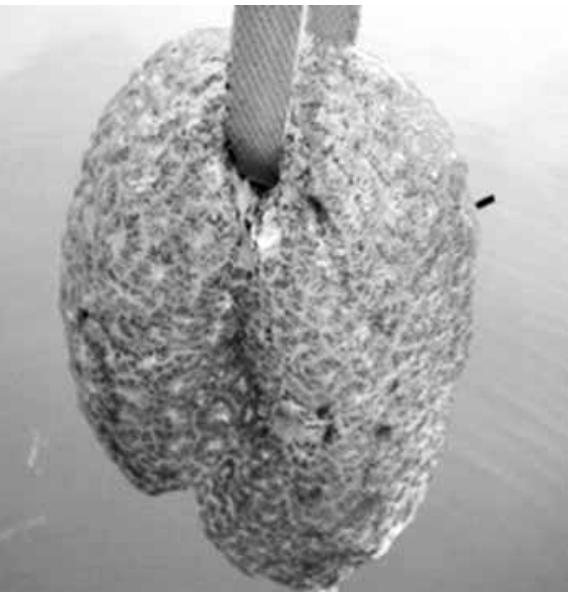
환경부는 4대강 유역에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7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유역지방환경청, 학계, 민간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뢰해 유해성 여부를 연구해왔다.

연구는 큰빛이끼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금강 세종보 인근에 현장과 유사한 생태계(메조코즘)를 설치해 미성숙·성숙·사멸 등 성장 단계별로 구분된 큰빛이끼벌레를 메조코즘에 넣고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시간 동안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현장 서식종인 납자루와 밀어, 송사리 모두 생존에 영향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올 여름 큰빛이끼벌레가 창궐한 것은 4대강 공사 중 설치한 보의 영향이 일정부분 원인이 됐던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됐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에 보가 설치된데다 큰빛이끼벌레가 발아하는 시기인 4~5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속이 감소한 것이 큰빛이



끼벌레 창궐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큰빛이끼벌레는 초당 10cm 이하의 느린 유속과 수초, 자갈 등이 많은 곳에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큰빛이끼벌레 창궐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빛이끼벌레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분출하고 용존산소를 고갈시킨다는 점 등 악영향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저체온증’ 주의보

이달 137명 신고 5명 사망...음주 후 주의

올 겨울 들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하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표적 한랭질환인 저체온증 환자의 절반은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고혈압·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44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한랭질환자는 총 137명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지난 17~18일에는 한랭질환자가 21명 발생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다.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저체온증이 116명(8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상 15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저체온증 환자는 연령별로는 50대(31명, 26.7%)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95명, 81.8%)에게서 많이 발생했다.

또 만성질환자(61명, 52.6%)와 경제적 취약계층(32명, 27.6%)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음주를 한 경우가 45.7%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사망자 5명도 음주를 한 경우가 3명,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3명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저체온증은 이상을 느낄 만한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 여가기 쉽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특히 겨울철 술을 마신 뒤, 산행 과정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하이브리드 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 지원

환경부 내년부터 LF 쏘나타 등 5종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LF쏘나타 등 5종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LF쏘나타(16·17인치 타이어 모두 포함)를 비롯한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 렉서스의 CT200h, 포드의 퓨전 하이브리드이다.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내년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약 300억 원으로, 3만여 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국가지정 6개 시험기관에서 측정한다.

예초 혼다의 인사이트와 시빅도 보조금 대상 차종에 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혼다 측이 내년도 판매계획을 잡지 못해 이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차종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본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의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ybridbonu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1661-097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아담카페식당 <small>동구천변로 405-101 천변리신주우송에서클박스쪽</small> 오리소스, 오리불고기 삼겹살, 목살, 주물럭 대표 김성훈 ☎062)224-0102	미정 <small>동구 금남로2가(구)동구청뒤 옛날구미향</small> 계절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	무등공인중개사 <small>북구 문흥동 938-4</small> 주공1차2차트래파라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대금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그레이아웃가게 <small>동구 황금동 91-1 강석빌딩지하콜박스사거리</small> 여성의류 소품물 잡화전문점 ☎062)225-4150	아워호텔 <small>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small> 한센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썬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우리밀빵 <small>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E동 51호 (분수대옆터미널)</small>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골든보석 <small>북구 우산동 187-8번지</small>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011-624-9200	골든전당포 <small>북구 우산동 187-8번지</small>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신신예술의집 <small>북구 우산동 187-8번지</small> 말바우시장축산농협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오리백년(두암직영점) <small>북구 두암동 에덴빌건너편</small> 오리한방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장어탕 ☎062)401-5253	광주화랑 <small>동구 공동 예술의거리</small>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장충동왕족발보쌈 <small>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small>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해달카드결제가능 ☎1588-3300
박당화랑 <small>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small>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062)222-6866	석당화랑 <small>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small>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나베움 <small>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속촌 옆)</small>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호선갤러리 <small>동구 예술의거리10번지</small>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토산철학원 <small>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 옆</small>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9655-7765	거금조경 <small>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으름주유소 맞은편</small> 굴취, 전지, 식재, 벌초, 산일, 이장 예초 정원자연석사주 대표 소정택 ☎062)268-7709